

연중 제17주일

기도서 402 면 (다해)

제1독서: 창 세 18, 20-32

제2독서: 골 로 2, 12-14

복 음: 루 가 11, 1-13

순정이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이를 용서하시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루가 11, 2-4).

사랑에 빠진 하느님

우리는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서로 만났던 아름다운 얘기들을 많이 기억하고 즐거워 한다. 이 도령과 성춘향, 왕자 호동과 낙랑 공주, 바보 온달과 평강 공주, 로미오와 줄리엣, 루갈다와 요한……. 수 많은 만남 중에서 유독 이들의 만남이 우리네 가슴을 훈훈하게 해주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인간적인 많은 굴레-재산, 가문, 명예, 외모-를 넘어선 진실과 진실의 만남이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어떤 행위를 판단함에 있어 그 행위의 옳고 그름, 현명함과 어리석음, 이익과 손해, 칭찬과 비난, 선함과 악함, 진리와 거짓…… 등등 이성적 합리성을 그 근거로 삼는다. 그런데 참으로 묘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만남들은 모두가 이러한 이성적 합리를 벗어난 행위였다는 점이다. 전쟁이 한창인 두 적국의 왕자와 공주가 남몰래 사랑을 속삭이다니 얼마나 어리석은가? 첩첩 산중 바보 온달에게 공주가 시집 가는일, 기생의 딸이 원님의 정실이 되는일… 이 얼마나 해피 망칙한 일이란 말인가? 왕손의 딸인 루갈다와 촌 사람 요한의 결혼, 그것도 부부가 서로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는 조건의 결혼…… 논리와 합리로는 도저히 납득 할 수 없는 어처구니 없는 행위였던 것이다. 그래서 당시의 학식있고 덕망있는 지성인들, 평범한 사고를 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들의 만남을 극구 말렸고 결국 죽거나 버림 받은 사람이 되어 살아야 했다. 그러나 세월이 흐름에 따라 이 어처구니없이 어리석은 이 만남들은 메마른 대지에 내리는 환 즐기 소나기 처럼 메

마른 우리 영혼을 촉촉히 적셔주고 있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그러할 것이다. 왜! 그럴까? 이유는 단 하나! 그 만남은 참으로 사랑의 만남이었기 때문이다. 인간적 모든 논리와 합리, 이성적 판단기준을 넘어선 “사랑으로써만 가능한 만남”이었기 때문이다.

로미오와 줄리엣이 서로 만나 사랑하듯이, 배운자와 못 배운자, 부자와 가난한자, 노인과 청년, 어린이가 모두 함께 모여 사랑하기 위해 만난다. 그리고 이 만남-서로 엄청난 차이가 있는 사람 끼리의 만남-은 사랑으로만 가능하다. 사랑하



교회공동체-우리들이 모이는 유일한 이유는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이처럼 사랑은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만나게 한다. 하느님의 사랑에 외아들을 죽인 인간과 하느님을 다시 만나게 하듯이…….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그러기에 하느님은 당신의 피조물이요, 외아들을 죽인 원수인 우리와 사랑에 빠질 수가 있었다. 하느님은 우리와 사랑에 빠진 것이다. 교회 공동체-이는 하느님 그리고 이웃과 사랑에 빠진 사람들의 모임이다. 우리들이 모이는 유일한 이유는 서로 사랑하기 위함이다. 하느님과 인간이 만나 사랑하듯이, 왕자 호동과 낙랑 공주, 바보 온달과 평강 공주,

기가 어렵듯이 이 만남 또 어렵다. 인간적 차원에서는 불가능 하리 만큼 어렵다. 그러나 끝까지 포기해서는 안된다. 아무리 어렵고 괴롭더라도 이 노력을 포기하는 순간 신자이기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 배운자들은 배운자자리 가진자들은 가진자끼리, 끼리 끼리만 모여 즐긴다면 이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다. 빈부귀천(貧富貴賤) 남녀노소(男女老少) 구별없이 모두가 함께 어우러지고, 그렇게 되려고 끝까지 노력할 때 그 공동체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즉 교회라 할 수 있다.

야유회가 아닌 수련회



(김숙) (파르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다. 수은주의 눈금 높이만큼이나 나라안이 들끓고 요란하지만 방학을 맞은 학생들은 마냥 흥겨운 표정들이다. 때 맞추어 학교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저마다 캠핑이나 야유회 등의 피서 계획을 발표하고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근래에 이르러서 서울의 재력가들은 하와이의 와이키키 해변이나 플로리다의 파나마 바다가의 백설탕같은 모래밭으로 피서를 떠난다고 한다. 나라안이 와글와글 시끄러지만 넉넉해진 것만은 사실이다. 우리 세대는 전쟁 체험 뿐이어서 고생한 경험만으로 현실 인식이 그만큼 편협하다고 비난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그렇기 때문인지 남자가 함께 어울려 산으로 바다로 몰려 다니는 것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였다.는 말은 옳지 않다. 오히려 걱정이 앞섰고 내 자식들에게는 승락따위 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것이 속으로 다짐했던 솔직한 생각이었다. 그러나 요즘같이 아이들은 공부에 쫓겨 어른은 생활에 쫓겨 살고 있는데 거기에서 불발터 위까지 시달리자니 이것저것만사 털어버리고 어제의 괴로움과 내일의 불안도 잊어버린채 훌쩍 도피해 버리고 싶어진다. 자연에 파묻혀 자연 속에 삶의 때와 먼지를 말끔히 씻어버릴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란 없지 않은가? 몇해전, 중고등학생들 교회에

서 가는 야유회에 같이 적이 있었다. 시간마다 색다른 흥미로운 프로그램이 계획된 스케줄에 따라 선생님들의 성의있는 지도로 행되었다. 푸른 초목처럼 싱그러운 발함과 맑고 맑은 웃음소리에 휩싸이면서 저토록 맑고 깨끗한 마들을 무엇이 묶어놓고 조여매 채찍질을 하는 것일까? 가엾까지 하여 많은 것을 생각하였 많은 생각들이 바뀌어지기도 하였다. 거기에서는 어른들이 염려하고 있는 문제의 소지를 발견할 수 없었던 것이다. 적어도 청소년 위해 교회학교가 마련한 수련회 참가한 학생들은 보다 진지하게 자신을 조명해보며 신앙을 성시키는 엄숙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들을 염려한 것은 나의 우연이었던 것이다. 물 위에 등등 떠다닐 수 있다 지중해 鹽海가 아니고 부자들이 이웃집 나들이 가듯 다녀 온다 와이키키도 아니지만 부모님 시고 가족끼리 오붓이 혹은 각 모임의 구성원들이 함께 마음모아 나서는 캠핑이나 수련회는 어찌 인간사에 반드시 유용한 부분 지도 모르겠다. 아직 관광지도 각광은 받지 아니한 곳이었다면 더욱 좋겠다. 골짜기로 흘러오듯 냇가에 발 씻으며 창조주께 감사하며 오묘하신 조화와 무소부하심을 찬양하는 찬미를 목청껏 외치고 그 메아리를 들을 수 있는 것 또한 은총 아니리.

“우리는 모두 한집안 한식구”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그들의 모든 것을 공동 소유로 내어 놓고 재산과 물건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한 마음이 되어 날마다 열심히 성전에 모였으며 집집마다 돌아가며 같이 빵을 나누고 순수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함께 먹으며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이것을 보고 모든 사람이 그들을 우러러 보게 되었다. 주께서는 구원받을 사람을 날마다 늘려 주셔서 신도의 모임이 커 갔다.

(사도행전 2, 43-47).

교회 안의 정거장 누가 만드나?

신부·수녀보고 성당가나?

요즘은 자기 기호대로 모든 것을 고르고 산다. 종교·삶의 표현도 분명하다. 그런데 그러지 않아야 할 것이 하나 있다. 어느 신부 수녀만을 찾아 다니는 인간 정거장을 만들지 말자. 교회라는 차는 주님이 운전수이시고 성령의 보이지 않는 연료로 움직여 진다. 우리 신자들의 알뜰한 선물꾸러미, 강론이 좋아서 또는 다른 무엇이 멋져서 찾아다니는 정거장... 생각해 볼 일이다. 각자 현재 본당 신부님 수녀님께 충실히 영적상 담을 해야 마땅하고 옳은 일 아닐까?

우리성당 배밭에서

우리성당 배밭에 풀이 자라도록 너무 자랐다. 떨어진 살구를 주으시던 할머니도 배밭에 풀을 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모르셨고, 지나가던 마리아도 바로 옆에 와서야 알아보았으니까. 할아버지는 혼자서 어떻게 심심해서 밭을 매나고 밭고랑 양쪽에서 호미질을 하면서 주고 받고 얘기를 나눠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일도 줄어든다고 성화시지만 모르시는 말씀이시다. 그건 품삯을 받고 하는 노동일 뿐이라고 속으로 반박하며, 제멋대로 자라다 내 손아귀에 뽑혀 시드는 이름도 모르는 풀한테 간

단한 위로의 말 한마디라도 나누고, 어쩌다 쳐져 종이웃도 못 입은 아기 배밭에게 나중에 상품가치도 없을 것을 걱정도 해주고, 돌아가신 할머니가 6·25 피난시절에 무쳐주신 나물, 그 시절에도 제일 맛있는 쇠비름을 호미로 캐내면서 할머니를 그리워도 해보았다. 어느 자매님은 발매는 시간에 목주 신통을 수십 꾸러미 했다는데 난 잠깐 그 생각만 떠올렸을 뿐 두어시간 동안에 주모경 한 번 외우지 못하고 일어서고 말았다.

그래도 영성하게 풀을 맨 배나무 밭을 쳐다보고 딸애가 "오늘 저녁 이 배나무들은 다리가 시원해서 잠을 잘자겠다"고 했다. 그 소리를 들으니 내 묶은 했을 거라던 생각이 짝 가시고 내일도



와야야겠다는 생각이 퍼뜩 뇌리를 스쳤다. 내일 와서 배나무더러 잘 잤나고도 물어보고 옆에서 갑갑했을 배나무에겐 나의 이기심을 고백해야 될까 보다.

이 세시리아/원평성당

반회장을 사임하면서

1981년 2월 27일 처음 반회장이 시작될 때 여러 사람들 앞에서

한번도 이야기를 해보지 않았던 내가 당황하고 부끄러워 했던 기억이 새롭다. 누구나 봉사자라고 선뜻 나선다는 것은 그리 쉬운일이 아니다. 예수님이 어떤분이신지조차 모르는 내게 반회장이란 직분이 주어졌을 때 눈앞이 캄캄했고 난감했다. 그러나 8년 5개월이라는 세월이 흘러 올해 5월 12일자로 백회의 반회합을 맞이했다. 백회의 회합을 맞이한 나의 마음은 감회가 깊다. 그동안 즐거웠던 일보다는 어려웠던 일들이 더 많았고, 그동안 나의 무능함과 소홀함, 다 하지 못한 일들이 나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것 같았다. 우리반 형제님들의 협조 속에 부족한 제가 반회장직을 다 마치도록 도와주신 모든 은혜 감사드리고 무엇보다도 교회의 소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 새회장님과 이백회를 향해서 뛰어갈 수 있는 힘주시라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영여/월명동 성당

답다고 그러시면 되나요...

삼복더위, 정말 답기는 덩다. 미사집전사제는 몇겹의 제의를 차려입고 줄땀을 흘리시는데 신자들은 보기도 민망스러운 정도로 잔뜩 파지고 소매도 없는 옷에 선풍기 바람이 더 잘 불어오는 의자쪽이 단연코 인기이니... 주님의 제사날이 내만큼 주일복장은 단정해야지요...

알고 봅시다

영화상영

어린이를 위한

방학특집 영화상영

홍보국에서는 범람하는 저질 만화, 공상영화로 멍들어가는 어린이들의 정서를 조금이라도 바로잡고자 좋은 영화를 선정, 상영합니다. 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

조 부탁드립니다. 관람비: 어린이 300원, 어른1,000원 영화제목: 「마르첼리노의 기적」 일시: 7월31일(월) 오후4시 1회상영 장소: 가톨릭센터 3층강당 * 부모님과 함께 보시면 더욱 좋습니다.



영화상영일시
7월 31일 오후 4시

장 소: 가톨릭센터 3층
영화명: 「마르첼리노의 기적」
어린이: 300원
어 른: 1,000원

서 적

성체조배

성체안에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비추고, 가르치고, 위로하고 도와주신다. 이 책은 성체조배를 잘 할 수 있도록 실제적인 기도방법을 안내한 기도문이다. 대축일과 성월, 연중시기에 맞게 다양한 주제로 엮어 졌으며 젊은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이 기도방법을 이용한다면 생생하고 뜻깊은 성체조배가 될 것이다.



성바로 딸 수도회 엮음
성바로 출판사
2,000원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노승동** 사제관 82-9663 주임신부 이 재 후
사무실 82-9661 사목회장 노 인 석
수녀원 82-9662

- 사목회 분과위원회: 4일 저녁8시 프란치스코의 집 회의실
- 중·고등부 성경학교: 7월31일~8월4일 수련회 5일~7일
- 모임: 성심회 성가대원례회-8월1일(화) 어머니미사후, 성체현 시와 성체강복-3일(목)8시 M.E장미팀 모임-4일(금)8시 이 지중씨대
- 반회장 모임: 4일 10시30분(여름성경학교 후원결과보고)
- 예수성심회 아우회: 8월3일(목) 9시30분 출발 장소-음수굴
- 푸르실로 여성29차: 7월27일~30일 서문일순, 한경희, 강혜영, 김복식 축하합니다. 신자들의 맑은 기도 바랍니다.
- 선택(Choice)피절: 4일 6시~6일 7시 미혼남녀 회비20,000원
- 세례대상자 집중교리: 7월(월)~12일(토) 저녁8시
- L.M 연쇄미사: 지정된 요일에 전단원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 지난주봉헌금: 603,190원 □교무금: 574,000원

***서학동** 사제관 84-8307 주임신부 서 석 기
사무실 86-4929 사목회장 김 환 용
수녀원 84-2276

- ※오늘은 연중 제17주일
- 1. 회의: ①자모회-8월2일(수) ②울뜨레아-8월3일(목) 오후8시 ③사목회-8월9일(수) 오후8시 ④반장단합대회-8월8일(화) 오전10시 장소-색장리 다리
- 2. 알림: ①초등부 어린이 여름성경학교-7월31일(월)~8월4일(금) 장소-성당 *자모회에서 가방 선물드림 ②사무장하계후가-8월1일(화)~8월4일(금) *사무보지 없음 ③예비자 교리 안내-매주일 공식미사후 *통신교리 수료자도 교리반에 참석 바랍니다. 축! 푸르실리스타 탄생-오묘세피나(효지), 이로서(역자) 오늘 귀가
- 3. 감사: 중·고등부 하계수련회에 협조해 주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지난주봉헌금: 452,840원 □교무금: 577,000원

***평화동** 사제관 85-6979 주임신부 박 병 준
사무실 83-8245 사목회장 김 광 환
수녀원 87-0229

- 1. 오늘: 정수녀님 영명축하식-공식미사후
- 2. 사목회: 8월5일(토) 오후8시(사제관)
- 3. 자모회·성심회: 8월1일(화) 오전10시30분, 오후2시
- 4. 초등부 및 중고등부 여름성경학교와 하계수련회에 수고하신 교사 및 협조해 주신분께 감사드립니다.
- 5. 신축헌금 신입자: 이완규50만원, 박경자10만원
- 6. 울겐기금모금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7. 성모승천대축일 성가연습: 어머니성가-토요일 오전10시30분 청년성가-수요일·일요일 저녁미사후
- 8. 차주전례: 해설-함평권 복사-이완규 박해근 봉헌-김종환 부부
- 지난주봉헌금: 357,495원 □교무금: 681,500원
- 자선헌금: 20,400원 □울겐기금신입총액: 3,975,000원 □신축금신입총액: 149,339,836원

***복자** 사제관 86-3453 주임신부 김 기 수
사무실 86-3455 사목회장 신 일 균
수녀원 86-3454

- 회장단회: 오늘 저녁미사후 2. 밀알회: 2일 오후7:30
- 제대회: 3일 오전10시 4. 어머니성가대원례회: 4일 오전11시
- 성체강복: 5일 저녁미사후 6. 대건회: 6일 공식미사후 7. 사목회: 6일 저녁미사후
- 감사: 여름성경학교 및 중고수련회 찬조금
- 신일균, 조옥례, 성우희30,000원 남성3단체85,000원 안나희, 여성봉과, 노순덕, 김수영20,000원 양현숙, 안나희, 황귀란, 유은자, 김현주, 박영정, 전광원, 원진희, 이성애, 조희용, 최정환, 육태수, 이원순, 최재홍, 전복남, 유대식, 강동일, 김주일, 신금식, 정장선, 장동주, 김병화10,000원 최애기6,000원 김명숙, 이영애, 최일병, 안병주, 유복규, 문덕순, 최정순, 정정자5,000원 강정자, 김부시아, 김갑식, 조금례, 이완순, 이옥례1,000원 홍덕요3,000원 육종만-여름모자 70개 530,000원 누계934,000원
- 금주전례: 해설-최옥남 독서①육경수 ②이현정 봉헌-육경수씨 부부 차주전례: 해설-최정순 독서①유대식 ②노부영봉헌-두석씨 부부 □지난주봉헌금: 552,030원 □교무금: 731,600원

***용머리** 사제관 6-2335 주임신부 조 정 오
사무실 87-0441 사목회장 황 희 상

- 1. 공동체 수련회 참가 회장자 접수마감: 오늘까지
- 2. 감사: 여름 성경학교에 협조해 주신 모든분께 중·고등 수련회 협조해 주신 모든분께
- 3. 분당수련회: 오늘 참석해주신분께 감사합니다.
- 4. 푸리아 모임: 다음주 공식미사후
- 5. 청소년봉사: 8월5일 효자마을
- 지난주봉헌금: 318,030원 □교무금: 707,000원
- 신축헌금: 13,310,000원(입금10,015,000원)

***효자동** 사제관 83-3841 주임신부 유 종 환
사무실 84-0915 사목회장 문 대 현
수녀원 84-4804

- 1. 감사: 초·중·고 성경학교 산간학교에 수고해주시고 협조해 주신분들께 2. 성모승천년 영세 대상자 집중교리: 8월8일~12일 오후7시30분~9시까지 영세식-8월13일 오후6시
- 3. 새예비자반 교리시간안내: 일-09:30 수-후7:30 금-10:30
- 4. 모임안내: ①안나희-다음주 11시미사후 ②글라라회-다음주 요일 10:30 ③카리따스-다음 금요일 오전10시30분
- 5. 청소년봉사: 금주-효동마을 금주-신촌주택
- 6. 전례담당: 계시관 참조
- 7. 오늘은 교무금 납부 주일입니다.
- 교무금: 1,310,000원 □공사를 위한 2차헌금: 254,480원 협조에 감사 □국교생헌금: 11,560원 □중고생헌금: 25,930원 □불우이웃을 위한 헌금: 26,200원

***상관** 사제관 82-5079 주임신부 양 석 현
사무실 82-5434 사목회장 유 순 천

- 성체강복: 3일(목) 오전미사후
- 사목회 월례회: 5일 저녁미사후
- 목주기도 봉헌: 5,639단 누계29,575단
- 예비자 교리: 공식미사후 강당 *열마남지 않은 시간 열심히 해주세요.
- 금주전례: 해설-김경재 봉헌-서병록 이준희씨 부부
- 금주전례: 해설-구영순 봉헌-박순귀 안정만씨 부부
- 감사: 본당 피정및 여름 성경학교, 중·고 수련회에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 구역미사: 3일 내정
- 천 영성체교리: 8월10일~12일
- 지난주봉헌금: 232,510원 □교무금: 225,500원

***전동** 사무실 84-3222 수녀원 82-9234 주임신부 이 수 현
유치원 84-8347 레지아 83-5085 보좌신부 김 선 태
사제관 82-6232, 82-7245 사목회장 안 득 수

- ※성전보수 헌금 바랍니다.
- 1. 울뜨레아: 오늘 공식미사후(사제관 2층)
- 2. 전신자 꽃동네 방문: 일시-8월26일 오전7시30분 출발 대상-전동 전신자 회비6,000원 접수-8월10일까지 사무실에
- 3. 축! 여성 푸르실리스타 탄생: 김기숙(테레사), 노영자(바실라)
- 4. 여름 성경학교가 부모님들의 성원으로 무사히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 5. 24시간 성체조배: 8월 3일
- 6. 병자방문: 8월 4일
- 7. 재속 글라라 형제회: 8월 5일 오후1시 30분
- 금주보수비헌금액: 2,765,000원 □현재모금총액: 40,223,410원 □금주보수비신입액: 100,000원 □현재신입총액: 180,967,150원

***효자우전** 사제관 86-3712 주임신부 박 창 신
사무실 86-3711 사목회장 김 용 무
수녀원 87-0711

- 1. 반석회 단합대회: 오늘 09:00 미사후
- 2. 오늘은 나눔의 주일입니다.
- 3. 여름성경학교: 초등부 31일(월)~3일(목)
- 4. 금주는 반회합 주간입니다.
- 5. 여성분과회의: 4일(금) 어머니미사후
- 6. 안심리 공식미사: 4일(금) 오후8:30
- 7. 주일미사시간: 6:00새벽미사, 9:00중고생미사, 10:30공식미사, 오후8:00
- 8. 성체대회 기념뱃지 판매
- 9. 차주모임: 사목회 새벽회
- 금주전례: 해설-강진상 독서①안남근 ②조신옥 기도-조용준 문경자
- 차주전례: 해설-김인규 독서①한정훈 ②황발자 기도-표근중 김영자
- 지난주봉헌금: 370,390원 □교무금: 655,000원

치명자산 할머니 - 장마리아

올해 76세인 장마리아(福壽) 할머니는 고령에도 불구하고 말과 몸짓에서 소녀같은 발랄함이 묻어난다. 행색도 그렇거니와 지나온 과거사를 들어 봐도 유복하기는 커녕 남달리 가슴아픈 세월을 살아 온 장할머니. 그가 이렇듯 해맑게 늙어 올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그것은 매사를 주님께 의지하며 믿고 감사하는 그의 삶의 태도에서 비롯되었다.

굽은 허리에 배낭을 메고 지팡이를 짚은 채 치명자산을 오르는 장할머니의 모습은 아는 사람들 사이에선 이미 유명하다. 순교동 정부부 추수갈다와 柳요한의 유해가 모셔져 있는 치명자산은 모든 교우들에게 마음의 안식처가 되어왔지만 장할머니에겐 특별히 감회가 새로운 곳.

중병으로 신음하던, 그의 하나 밖에 없는 피붙이 테레사가 치명

자산에서의 새벽기도 덕분에 회생했기 때문이다.

말을 위해 3년을 하루같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꼭두 새벽부터 일어나 산을 찾은 어머니의 정성은 눈물겨운 것이었다. 끝내 주님은 그 정성을 외면하지 않으셨다.

“내 나이 스물넷에 남편(당시



26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테레사는 유복녀였지요. 그 애가 시집을 간 후 시름시름 아팠어요.”

24세되던 해 그해는 장할머니에게는 잊을 수 없는 해이다. 바로 그해 남편을 잃었고 처음으로 주님을 만났다. 너나없이 먹고 살기



유요한·이루갈다 일가족이 문힌 묘역 앞의 장마리아

힘들던 그 시절 남편을 잃은 젊은 여인이 어린 딸과 함께 맞부딪혀야 했던 세월은 모질고도 고통스러웠다. “주님이 아니었다면 생목숨 열번도 더 끊었을거요. 허지만 내겐 주님이 계셨기에 늘상 괴로운 때마다 아쉬운 사정 털어놓으면 주님은 그렇게도 잘 들어 주셨지요.”

장할머니는 그 은총에 감사하는 뜻에서, 또한 순교 동정부부의 거룩한 뜻을 기리고 후손이 없는 두분의 자손노릇을 하려는 마음에서 77년 1월 31일, 추 추갈다 순교일에 「루갈다」회를 조직, 묘소를 돌보고 기념사업을 위한 기금을 모으고 한달에 한번씩 철야기도를 하며 오늘에 이르렀다.

남편이 죽었을 때 이미 세상에 는 人力으로 안되는 일이 허다함을 깨닫고 그로부터 50여년 세월을 오직 주님께 매달려 살아왔다는 장할머니. 그는 오늘도 “늘상 아쉬운 말씀만 드렸음에도 마다 않고 들어주신」 주님께 꼭 미안하고 염치없는 마음을 안고 살아 간다.

요심이 (834) 김병오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은

전라도와 충청도의 징검다리 - 수청공소



전라도의 천주교회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지역중의 하나는 高山이다.

초기 천주교의 포교시절과, 뒤 이어 찾아온 교난의 시절에 피난 겸 은거한 신자들의 본郷이랄 수 있는 高山지역은, 그래서 많은 공소가 골짜기, 골짜기마다 그리고 마을마다 들어선다.

그 마을, 마을이 대부분 교우촌이었음은 물론이다.

이 지역은 全州와 충청도와의 연락이 용이하기도 했고 또 서해 쪽으로 넘어오는 외인 선교단들의 거점으로도 활용이 좋은 지역으로서의 이점도 있었던 것이 교세 확장과 융성의 근간을 이루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 지역 초기 공소 가운데 하나가 완주군 운주면의 수청리 공소이다.

1840년대 초기공소의 신자들이 순교를 당한 후 1880년대에 들어 석장골, 차돌배기, 안심, 갯골이, 미남리와 함께 1887년 수청리 공소는 문을 연다.

그 이후 1890년 소두러니, 되재, 음수골, 한대골 공소가 문을 열고 함께 전교활동의 본거지로서 큰 역할을 하게 되며 특히 되재 본당의 공소로서 수청리 일대의 공소중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

1942년 되재본당이 공소로 바뀌며 수청리본당으로 승격되어 김도밍고신부가 초대주임으로 부임한다.



수청공소 산본당에 속한 현재

1947년 6월16일 徐알렉스(廷壽)신부가 부임하는 등 한때 고산북부지역의 성역구실을 톡톡히 해냈다.

수청리공소가 특히 유명한 것은 순교자 김아우구스띠노(영오)의 묘소를 잘 간직해 오고 있었던

데도 연유한다.

수청리에서 석장리가는 언덕배기에 있던 그의 무덤은 현재는 비봉의 천호성지로 이장되어 4명의 聖인과 함께 묻혀있다.

김 아우구스띠노는 고집재덕 주교의 증조부이다.

全州에서 대둔산방면 35km 지점 말골재 넘기 직전의 산골 도로변에 있는 수청리 공소는 雲洲 유일의 전신자 공소로 지금도 매

월 2회, 수청, 수터, 석장, 빼재 등 4개 공소의 신자가 모여 합동 미사를 올리고 있다.

6·25이후 參 본당 소속을 거쳐 현재는 高山본당에 속해 있다.

교구소식

천주교 전주교구 가톨릭 합창단 모집

천주교구에서는 전례음악의 발전과 교회 성가의 활성화보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교구를 대표할 합창단원을 모집합니다.

1. 모집부문 :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 남녀 00명
2. 자 격 : 성가에 관심있는 교구내 모든신자 (연령, 성별 제한없음. 가족집단, 전직성가대원 환영)
3. 원서배부 : 8월14일까지(센터, 안내실)
4. 접수마감 : 8월21일 접수처-교구청 홍보국
5. 합격자발표 : 추후 개별통지

※ 축! 영명 : (성이냐시오) 성태수 신부, 안철문 신부님
 ※ 용안천주교회 전화번호 변경 : 사제관(861-3275) 사무실(861-3276)

이상섭 신부님 주소 : St. Basil's Church 3611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05 213-381-6191 U. S. A

“변산해수욕장 미사”

즐거운 피서철! 그런데 웬지 우울해진다. 주일 미사를 걸렀기 때문이다. 피서도 하고, 주일미사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교우들의 보다 즐거운 피서를 위해 부안 본당(주임신부 안철문)에서는 지난 7월 16일부터 변산해수욕장 노천무대에서 주일미사 시간을 마련하였다. 60~70명 정도가 참석하는데 대부분이 서울교구 신자란다. 피서도 좋지만 주일 의무만은 다 하도록 계획을 세우자. 미사 시간은 매주 일요일 오후4시, 8월 16일까지...



내과 전문

위상양 내과 의원

위상양 (프란치스코)
 김병희 (글라라)

전주시 고사동2가 1-13 (완주농협·우신호텔앞)
 ☎ 병원 4-1225
 ☎ 자택 75-0034

동양한의원

한 의사 민 병 부 (스테파노)

전주시 전동 시외버스 터미널 옆
 ☎ 한의원 84-2303
 ☎ 자택 84-2863

〈진료과목〉
 내과 · 외과 · 소아과
 산부인과 · 피부비뇨기과
 물리치료

서울의원

가정의학과
 침술의
 의학 박사

이상재

전주시 덕진동 1401-19(덕진광장앞)
 ☎ 75-0550,0551

믿음과 정성을 다하는

광명안경원

박종락 (조화서베드로)
 안화동 (프리스가)

전주오거리(신)시강정형외과 앞
 (구)나정회외과

☎ 74-1123, 3-6709

일본명상

노년의 문에 서 있는 사람에게 물었다. “미지의 세계로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게 등불을 주시오.” “그러자 그는 대답했다. “어둠 속으로 나가서 당신의 손을 하느님의 손에 맡기시오. 그것이 등불보다 더 낮고, 알려진 길보다 더 안전한 것이요.”

M. 루이스 헤스킨스

명동피부과의원

치명자산 성역화 공사

활발히 진행중!
언제나 공사가 끝나요? 치명자산을 순례하는 순례자들이 구동성으로 묻는 말이다.
현재 공정은 지하 두갈다 성당 기초와 바닥 공사가 거의 마...

의 생가터는 과거저택(破家瀦宅)이라는 형벌을 받으므로 웅덩이가 되고 말았다. 그 마을 사람들은 그 곳을 '녹강 뱀'이라고 불렀으며 지금은 메워져 거의 흔적이 없지만 무성히 자란 갯 미나리가 옛날을 말해 준다. 그 주위에 주민 두세대가 살고 있어 이제까지 손을 못대고 있었는데 지난 4월, 그 집을 이주 시키므로 순례객들을 맞이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였다. 현재 집 두채를 철거하고 성역화 설계가 진행 중이다.



그런데 참으로 아쉬운 것은 바 이 지역에 살고 있는 그들의 제라고 자처하는 우리 교구 신들의 성의가 너무도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제 곧 사람들은 말 할 것이다. "전주교구 교우들 치명산 개발하느라 참 고생이 많았..."라고. 바로 그때! 뭐라 답할 것인가? 얼굴만 붉히고 것인가?

초남리 성역화사업 시작



초·중·고 교리교사 하계연수회 무사히 마쳐...

여름방학 교리교육을 위한 초·중·고 교리교사 하계연수회 (초등부: 6.26-29, 중·고등부: 6.30-7.3)가 송광 제2야영장에서 열렸다.

여름방학 교리교육이 이제 정착된 프로그램으로서, 매년 사목 지침을 중심으로 교육목표 구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금년에는 특히 세계성체대회와 전주교구 어린이 청소년 성체대회를 준비하면서 성찬의 정신을 배우고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또한 중·고 교리교사 하계연수회에는 각 본당 하계 코이노니아(캠프)실기를 병행 실시하였다.

초남리 성역화 사업시작
호남의 최초 신자이며 가성직의 사제였던 유 향검(아우구스노)과 그 일가(루갈다, 요한 신희, 이육희, 강주도령 유 중.....)과 살았던 초남리(완주군 서면 남계리 초남부락)의 성역 사업이 시작 되었다. 당시 역적인으로 몰려 처형된 유 향검씨

신설 (서신동) 본당 - 어떻게 지내고 있나?

전주시 서신동 18번지 한길레 골짜기 자매님의 낡은 삼간기와집 좁디 좁은 옆방과 마루에 서신동 본당 부녀회와 자모회원 자매 10여명이 벌써 두달째 매일같이 모여 지점도 공예품을 만드느라 진땀을 뺐다.

지난해 5월21일 숲정이 본당에서 서신동 다리 건너 한일 고등학교 입구 독서실 2층을 세내어 분가해온 서신동본당 성전건립기금에 조금이라도 보탬을 주기 위한 정성들이다.

장마가 오락가락하는 복더위속. 세상근심이라고는 그림자도 비치지 않은 해맑은 모습으로 펄프에 본드 등을 섞어 만들어진다 는 하얗고 끈적끈적한 지점토로 향아리, 꽃바구니 등을 만들고 있는 자매들 가운데 벌써 교회의 주춧돌은 하나씩 굳건히 자리를 굳혀가고 있다.

"서툰 솜씨이지만 우리는 마음의 성전을 쌓고 있습니다."

미술대 출신으로 조형에 남다른 감각을 지닌 팀장 이한은(바울리) 자매의 말이다. 기술지도는 예비교우인 조미자 자매가 맡고 있다. 탁자바침이나 꽃향아리 등으로 쓰일 30여개의 작품을 만들어 오는 10월 중순께 전북예술회관에서 교구사신동우회 사진전과 결하여 전시회겸 바자회를 가질 계획이란다.

성전건립을 위해 정성을 다하는 교우가 자매회나 부녀회원들만은 아니다. 본당의 모든 교우가 폐품수집 벽돌헌금 9일기도 등을 통해 마음의 성전을 쌓아가고 있다. 전주천 하류 서쪽 변두리. 몇년 전만해도 장고개 매머너 감

나무골 새터로 불리우던 도시의 시골동리. 생활보호대상 교우가정이 40세대에 농사짓는 가정이 10세대, 공무원 교직자 운전기사 등 일정한 수입을 가진 가정이 겨우 40여 세대. 나머지는 모두가 학생들로 구성된 교우수 1천여명.

마음들이야 모두 굴뚝같지만 형편이 형편이들인지라 누구하나 자랑삼아서라도 풍터기 봉헌금을 낼 수 있을 턱이 없는 처지다. 그런데도 지난 1년여동안 어려운 가계를 쪼개고 또 쪼개어서, 학생들은 빠듯한 용돈을 아껴가며 한푼 한푼 모은 것이 1억여원. 여기에 앞으로 봉헌기로 신입한 기금이 1억2천. 그래서 대지 6백 95평에 3층 연건평 5백여평 규모의 성전건축비의 절반가량은 이미 확보돼 있다는 소식이다.

이처럼 가난한 본당이 성전건립비를 이만큼 마련해 낸 것은 보기도된 일이라는 게 교구내 사제들의 공통된 견해이기도 하다.

한식풍이 엿보이는 성전의 설계는 반도종합건축설계사무소 우양근(알베르토)사장이 무상으로 제작해 주었다는 것.

20여명 남짓한 현재의 임시 강당에서 요즘처럼 무더운 날씨 속에 2~3백여명의 교우가 모인 가운데 미사를 진행하기란 여간 고행이 아니다.

그래서 본당주임 박성팔(안드레아)신부님이나 교우들은 만날 때마다 성전건축을 화제로 삼으며 안타까움과 설레임 속에 나날을 보낸다.

"이제 삽질을 해도 되겠군" 지난 7월 19일 오후 사무장 김문태(마지아) 형제(37)로부터 건축허가서를 건네 받은 박신부의 얼굴에는 안도하는 느낌과 큰일을 맞은 긴장감이 교차했다.

서신동 본당이 세워지는 곳은 서신동 전주천 다리 건너 대한방직으로 가는 길목 1km 지점, 전주시 서신동 307, 308번지. 아직은 허허로운 논바닥이다.

교우들은 오는 8월 중순께 삽질을 시작, 내년 5월 성모의 달이면 준공될 예정인 새 성전을 마음속에 그리고 세우며 요즘의 불편을 견디어 낸다.

"주님을 모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성전이 되게 하소서."



지점토공예에 열중한 신자들

숲 정 이 산책 "지역감정 누가 만드나!"

산책
전주께 감사
Illustration of people at a table.

◆ 신부가 신자를 고발한다면...
"어린이 여러분! 지옥이 따로 있는 줄 알아요? 북한이 바로 지옥이에요. 그곳에서는 엄마 아빠가 김일성을 욕하면 자식이 공산당에게 일러 바쳐 벌을 받게 한답니다"라고 가르치던 국민학교 반공 도덕시간이 생각난다. 무서워서 치를 떨었다. 현대 알고보니 이는 북한을 두고 한 말이 아니라 우리 남한의 얘기였나 보다. 글썽! 사제가 신자를 일러 바치지 않았다고 "불고지죄"로 벌을 받아야 한다니 말이다. 그들은 우리 교우들의 삶을 몰라도 너

무 모르는 것 같다.
부모에게도 자식에게도, 세상 누구에게도 못할 말 들이 사제와 신자 간에는 자연스럽게 오가는 우리의 삶을 그들이 알리가 없겠지만 "신자를
코뚜레
고발하지 아니함이 죄가 된다면 언제라도 달게 그 벌을 받겠다"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추기경님의 모습에서 "양들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목자"의 모습을 본다.

◆ 지역감정의 원인
지난 19일, 20일 양일간에 걸쳐 단행된 7명의 장관과 9명의 차관 중에 우리 전라북도 사람은 단 한명도 끼지 못했다. 특히 차관 9명 중 5명이 영남 사람이고 나머지는 강원, 경기, 충남, 서울이 각각 하나씩 나눠 갖게 되었다.
현재 영·호남 지역 감정의 근본 원인이 위장자들의 지역 편중 개발, 지역 편중 인사에 있음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처지. 그런데 또다시 이런 것거리를 하고 있으니... 도대체 그들 속셈이 뭘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정신과학 세미나
주제: 고도의 정신 및 두뇌활용법
효과: 스트레스 해소, 수면조절, 신앙심화, 기억력·집중력 증강, 타인컨트롤법, 목표성취법,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테크닉 등.....
일시: 8월 4일(금), 8월 7일(월) 오후 2시, 7시
장소: 전주 카톨릭센터 대강당
문의처: (042) 255-6833
연사: 김 중 배 박사(말시아노)
참가비: 1,000원

정창희 정형외과 의원
의 학 박사 정 창 희 (안셀모)
정 형 외 과 전문 이 성 숙 (안젤라)
전주시 전동 1가 192-3 (전동성당 옆)
☎ 84-2926
☎ 자택 6-1625

(보건사회부 허가 제210호)
맥코이 이온정수기
수도직결 순간 이온정수기
"맥코이 이온정수기가 만든 알카리성 칼슘 이온수는 맛있는 물, 살아있는 물, 의료효과가 있는 물"
●KBS-2TV: 월~금요일 아침8시30분 생방송 (전국은 지금)에 TV광고 중
※교우상담 및 문의전화 환영
※직원모집: 운전면허1종, 오토바이 소유자 (교우환영)
(주)모리아크리스탈 전 북 사업본부
사업본부장 서 동 주 (스테파노)
전주시 금암동 706-4 (명동시외버스터미널 신대방 2층)
☎ (0652) 75-1654, 77-4312

추개원
강만춘 내과 의원
진료과목: 내과·소아과
전문의 강 만춘(토마스 모어)
최 희숙(카타리나)
부안군 부안읍 서외리 41-6 (서림마을금고 옆)
☎ 병원 (0683) 83-8900

조림식 건축의 완성!
완벽시공으로 정성을 다 하세
京一建業
김해선 (레이미오)
전주시 서노송동 흥국생명앞
☎ 73-1611, 75-0161